# 시원한 피서, 그런데… '양심'은 왜 버리셨나요?

## 광주 교외 유원지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

### 계곡 입구·하천 둔치 등 평일 5t·주말 휴일 10~15t 각종 쓰레기 쏟아져 나와 각 구청 날마다 수거 전쟁

광주 교외에 자리집은 유원지가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청소 인력을 늘려 쓰레기 처리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피서객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8일 오전 1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충효동 풍암정 계곡 입구. 맥주병·소주병·과자봉지에 먹다가 남은 치킨·피자가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쉼터에선 일부 피서객들이 삼겹살을 굽고 있었으며 한 쪽에선 삶은 닭을 먹은 뒤 남은 뼈를 숲 속에 내던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곳은 취사제한구역이다.

쉼터 인근에 있는 우거진 숲 속으로 들어가자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옷가지와 신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다. 악취도 심하게 풍겼다.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광산구 임곡동 임곡교 아래 하천 둔치. 100ℓ 짜리 종량제 봉투 30개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를 구청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수거한 뒤 모아둔 것이다.

참여자들은 피서객들이 야영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지만, 피서객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면서 이 일대는 악취가 진동했다.

참여자 김모(여·58)씨는 "주말엔 100ℓ 짜리 종량제 봉투 50개로도 부족할 정도"라며 "쓰레기를 치우는데만 반나절 이상 걸린다. 주말마다 어김없이 난장판이 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피서객의 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서철 광주지역 주요 피서지에선 평일 평균 5t, 주말과 휴일엔 10~15t 가량의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나온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청소 인력을 대거 투입,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북구는 청소기동처리반을 운영, 수시로 피서지를 오가면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20명을 청소 인력으로 배치해 청소 업무를 맡기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피서지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도 별도로 없는 데다 부족한 인력으로 계곡 곳곳의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피서객들이 최소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등 분리 수거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엇이 들어있을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보증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오후 1시께 강운태 광주시장실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 등을 들고 나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장실 압수수색

## 광주지검, 수영선수권 정부 보증서 조작 수사 … 강운태 시장 소환 여부 주목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보증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1시께 광주시청 강운태 시장의 집무실과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의 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강 시장은 휴가중이어서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 시장이나 김 사무총장이 정부 보증서 조작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강 시장은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사무총장은 강 시장을 빼고는 사실상 유치위의 최고 책임자다.

검찰은 정부 보증서 조작 경위와 가담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강 시장이나 김 사무총장 등이 업무보고 등을 통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말이 아닌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담당 부서인 시청 체육진흥과와 유치위원회 사무실, 공무원들의 인터넷 계정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유치위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보증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에 이어 마케팅팀장, 광주시 체육진흥과장, 체육U대회 지원국장 등 결재선상의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이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 시장의 소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공문서 조작 사실이)총리실에서 드러난 이후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야 (조작 사실을)알았다"며 사전 묵인 또는 인지 사실을 부인해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함바비리 유상봉 구속영장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 경찰이 유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유씨는 구속집행정지 중이던 지난해 4~5월 일반식당 운영자 박모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웃돈 요구' 대리기사 횡포 심각

### 광주 상무·수완지구 등 폭력시비 경찰서행 잇따라

#.자영업자 이모(35)씨는 지난 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L오피스텔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심한 말다툼을 했다. 말다툼은 집 주변에 도착해서 시작됐다.

이씨는 "요금 1만 원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사는 1만3000원을 요구했다"며 "왜 돈을 더 줘야 하느냐고 따졌는데, 상무지구라서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말만 들었다"고 불쾌해 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항의하면 욕설을 하는가 하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대리운전 기사에 따라 요금이 제각각인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대리운전업체가 특수를 누리자, 일각에서 이를 악용하는 기사들도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는 줄잡아 40여 곳으로 2000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 상무지구나·충장로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서는 찾는 손님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웃돈을 얹어주지 않으면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같은 구간을 가는데도, 천차만별인 요금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상무지구에서 문흥동을 갈 때 1만원을 받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1만3000원 이상을 줘야 간다며 버티는 기사도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는 요금 문제·장소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와 이용자 간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건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들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감독할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등록제·신고제가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등록제로 전환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없어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대리기사와 마찰이 생기면 경찰서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황룡강서 어부 2m 강물에 빠져 숨져

## 가마미해수욕장 의식잃은 80대 구조

지난 7일 오후 7시10분께 장성군 북일면 황룡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정모(58)씨가 수심 2m의 강물에 빠져 숨졌다.

정씨는 이날 휴가를 맞아 모처럼 만난 동네 후배 김모(56)씨와 황룡강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러 가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정씨가 음주상태에서 찬 강물에 들어갔다는 김씨 등의 진술로 미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8일 낮 12시께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이모(84)씨가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목포해경 소속 박윤성 경장이 발견, 신속한 응급 조치로 구조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횟집서 무전취식…출동 경찰 폭행

**쌍나팔**

○…횟집에서 무전취식을 한 30대 남성이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경찰서행.

○…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 7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J참치 횟집에서 광산경찰 수완지구대 소속 이모(27) 경위에게 심한 욕설을 한 뒤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김씨는 이날 소주 4병과 참치 3인분을 주문해 먹은 뒤 술값 등 13만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주인(42)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